

2008. 2. 4 제184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

2008. 2. 4 제184호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영국 버밍엄市와 서퍽市の '러닝 랩' 제도

### [해외출장 리포트]

네덜란드의 '국가 및 市 건축가' 제도

### 도시경영·경제

1. 민원 처리시간 단축시스템 운영 (요코하마)
2. '건강한 지역 만들기'에 투자하세요 (일본 교토府)
3. 비즈니스·생태관광으로 관광객이 전년도보다 10% 늘어 (브라질 쿠리치바市)
4. 인터넷으로 전입주민 '오리엔테이션' (파리)
5. 가장 역점을 뒀야 할 행정서비스 1위는 '치안 대책' (도쿄)
6. '영화도시' 마케팅 활발 (파리)

### 복지·문화

7. 자녀양육, 이렇게 '응원'합니다 (도쿄)
8. 예술가에게 작업공간을 빌려줍니다 (파리)

## 목 차

9. 학문 분야에서도 ‘우먼파워’ 기대 (베를린)
10. 여성이 나서면 ‘스포츠 가족’ 된다 (브라질 쿠리치바市)
11. 요양할 사람, 이곳으로 오세요 (베를린)

### 도시환경

12. 지구온난화 방지는 가정에서부터 (런던)
13. ‘바람’으로 모든 주택에 불 밝히자 (영국)
14. CO<sub>2</sub>=돈...혼잡통행료 차등부과해야 (런던)
15. 소형 발전기 설치할 때 이웃에 피해주지 마세요 (런던)
16. 민간 주택사업체도 기후 보호에 앞장서 (베를린)
17. 가로수를 죽이는 제설용 소금 살포 No! (베를린)

### 도시교통

18. 교차로·횡단보도에 방지턱을 설치해 교통사고 줄이자 (뉴욕)
19. 강에서도 속도 규제 도입 (런던)

### 방재·안전

20. 산불이 발생하면 주민에게 긴급통지 (캘리포니아州)
21. 접근하기 힘든 화재 진압은 ‘원격 이동 소화장비’로 (런던)
22. 재해 극복의 일등공신, 자원봉사 (일본)

## [벤치마킹 사례]

### 영국 버밍엄市와 서퍽市의 ‘러닝 랩’ 제도

#### <주요 내용>

- 영국 버밍엄市와 서퍽市는 행정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러닝 랩’(Learning Lab)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의 의식과 가치관을 고객지향적으로 바꾸고 있음.
  - 러닝 랩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일종의 학습동아리로,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학습과정을 통해 고객지향적인 시정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음.
  -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발적인 학습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등 조직문화의 일대 혁신을 가져옴.
  - 러닝 랩에 속한 공무원은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 제공방법을 토론하고, 여기서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접 현장에 적용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자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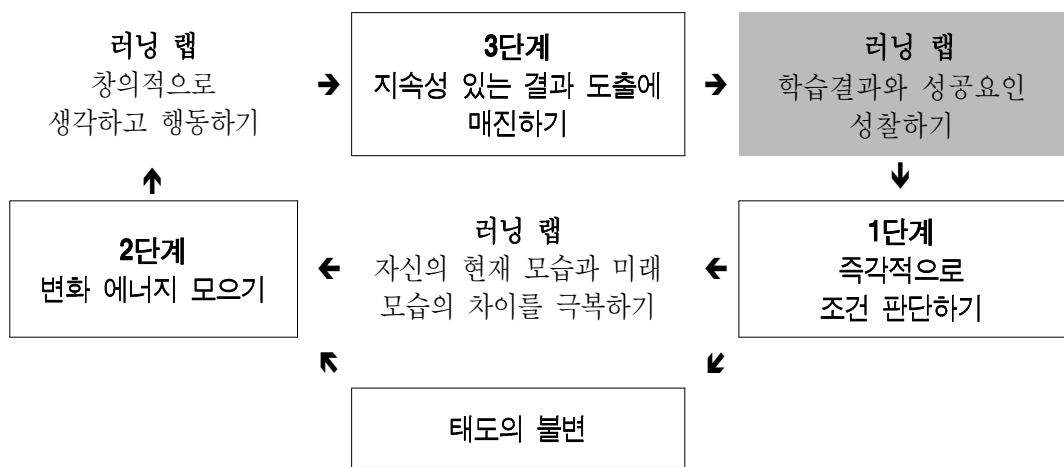


러닝 랩 회의장면(왼쪽)과 러닝 랩 구성원과 주민의 만남(오른쪽)

- 러닝 랩 운영 초기에는 市가 시범적으로 몇 개 팀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기도 했음. 하지만 점차 자발적인 러닝 랩이 증가해 현재 최고가치 평가팀, 조직발전팀, 학습팀, 일선 행정서비스팀 등 수십 개의 러닝 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각 러닝 랩은 市가 추구하는 정책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팀, 성과에만 초점을 두는 팀, 변화관리만 추구하는 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만 찾는 팀 등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으며, 운영목표나 운영방식이 매우 자율적임.

- 대체로 러닝 랩은 정보 획득·해석·적용이라는 3단계 학습과정에 따라 운영됨.
- 러닝 랩 구성원은 각 단계마다 고객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행정서비스 개선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학습능력을 높여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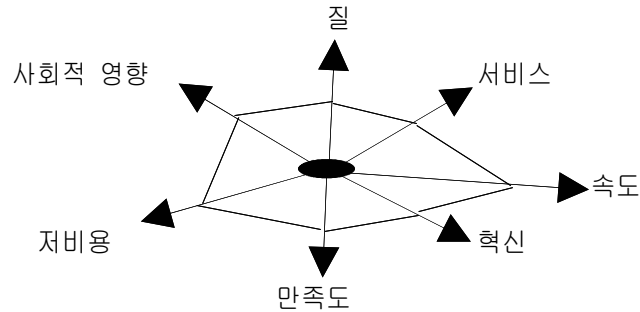


버밍엄市的 러닝 랩 매뉴얼에 제시된 러닝 랩 학습과정

### <해설 및 평가>

- 러닝 랩은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에 활력을 불어일으켜 조직문화를 혁신했음. 또한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음.
- 러닝 랩은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조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와 단결력이 증가해 성과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음.
- 러닝 랩에서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할 때 항상 시민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공무원은 고객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전략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러닝 랩의 구성원은 소수지만, 이들이 현업으로 돌아가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전환하는 '혁신 DNA'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러닝 랩에 속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자극제가 됨.



러닝 랩에서 고객지향적 가치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7가지 요소

###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창의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역량 제고와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음.
  - 창의역량 제고는 집권적 인적자원 관리나 하향적 인적자원 개발방식으로는 어려우며, 조직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고객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함. 특히 시민 고객과의 접점인 민원행정 현장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 서울시 안에서도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 현장학습(Action Learning)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이들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고 일관성도 미흡한 실정임.

### <벤치마킹 시행방안>

- 창의시정을 위해 처음부터 완벽한 러닝 랩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음. 우선 팀별 모임을 활성화하거나 동아리 운영방식을 개선함.

- 팀이나 동아리 구성원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 해결과제를 선정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 러닝 랩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시민고객을 항상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 러닝 랩의 제도화는 인적자원 개발 관련 부서가 담당함. 러닝 랩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의 러닝 랩 운영 매뉴얼을 보면, 공무원과 市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제시함. 또한, 변화지향성 태도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질문지가 매뉴얼에 있음(아래 표 참조).
  - 러닝 랩 구성원은 질문지를 이용해 자신의 변화능력을 평가하거나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팀이나 공무원의 변화능력을 진단하기도 함. 변화에 대한 의지력과 변화 대응능력을 상·중·하로 표시하도록 돼 있음.

Use the matrix below to rate the readiness and capability of all your key people (and groups) to commit to change and actually deliver it. Judge whether their level is High - Medium - Low.

Key people/groups	READINESS TO CHANGE			CAPABILITY TO CHANGE		
	High	Medium	Low	High	Medium	Low

Note: **Readiness** = commitment, willingness, motivation, vision  
**Capability** = skill, knowledge, power, influence

러닝 랩 운영 매뉴얼에 있는 ‘공무원의 변화지향성 태도 측정지’

### <벤치마킹 기대효과>

- 러닝 랩 제도는 경직된 직무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창의시정을 가능하게 할 것임.
-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항상 고객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도록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문화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김귀영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gykim@sdi.re.kr)

## [해외출장 리포트]

### 네덜란드의 ‘국가 및 市 건축가’ 제도

#### <출장 개요>

- 소규모 블록형 주택재건축 정비모델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10월 9~1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와 헤이그市の 블록형 주택단지를 답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주요내용>

- 네덜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축지원 정책을 펼치는 나라임. 중앙정부와 각 도시는 건축가를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해 건축물의 디자인을 관리하는 ‘국가 및 市 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가 및 市 건축가는 공간계획·기반시설·조경 등 건축 관련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디자인을 중시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언함.
    - 중앙정부와 市는 국가 및 市 건축가에게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예산을 결정함.
    - 최근에는 국가 및 市 건축가에게 주요 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사회 전반의 정책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디자인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디자인을 중시하는 도시계획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는 또 다른 제도가 단계적 발주방법임.
  -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프로젝트의 성격과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설계사무소 10여 곳을 국가 및 市 건축가가 정함.



- 국가 및 市 건축가는 프로젝트 발주처와 협의해 5개의 최종 후보를 정한 후, 이들 설계사무소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제안서를 검토한 후 설계사무소 일부를 탈락시킴. 그런 다음 다시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을 충족한 1개 설계사무소를 최종 업체로 선정함.
- 현상(懸賞) 설계방식을 통해 최종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더라도 현실적인 요구조건에 맞게 계획안을 조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단계적 발주방법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계획안을 확보할 수 있게 됨.



디자인을 중시한 헤이그市 도시 시설물: 고가도로(왼쪽)와 지하 주차장(오른쪽)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디자인 중심의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정책 외에도 사회 전반의 정책 결정과정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임희지 도시계획부 연구위원(heeji@sdi.re.kr)

### 1. 민원 처리시간 단축시스템 운영 (요코하마)

- 일본 요코하마市 가나가와區는 구청 직원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IT 기술을 활용한 창구연계시스템을 완성함.
  - 가나가와區 호적과는 전입 신고를 하러 온 방문객으로 항상 붐빔. 그런데 이와 연계해 연금보험 등을 처리하는 부서는 다른 층이나 다른 건물에 있음.
    - 방문객이 청사를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 번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이 따름.
  - 창구연계시스템은 일본에서 전례가 없는 새로운 서비스로, 여러 창구를 방문해야 할 경우 최단 경로가 안내되므로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여러 창구를 방문해야 할 경우, 최초 접수창구에서 업무내용과 신청자 정보가 접수되면 다른 창구의 접수번호도 일괄 등록됨.
    - 다른 창구에서 필요한 업무처리방법과 대기자 수에 관한 안내문도 받게 됨.
  - 현재는 접수할 때 대기자 수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기자 수에 따른 창구별 민원 처리시간을 분석해 ‘창구별 대기시간’ 안내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임.

([www.city.yokohama.jp/me/kanagawa/kusei/hodo/kamesapo.html](http://www.city.yokohama.jp/me/kanagawa/kusei/hodo/kamesapo.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국가 간의 행정을 상호 학습하는 고객만족 경쟁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행정관리에 있어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음.
- 요코하마市 가나가와區는 창구연계시스템을 통해 창구 접수에서부터 일괄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음.

·특히 시스템 개발 시 외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청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만든 것이 특징임.

- 최근 서울시는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산플라자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시스템도 개발함. 또한 민원상담 예약시스템과 콜센터를 도입해 민원처리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호적 업무와 연동된 전입신고, 복지수혜, 자동차 등록 등의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으므로 가나가와區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김찬동 도시경영부 연구위원(chandong99@sdi.re.kr)

## 2. ‘건강한 지역 만들기’에 투자하세요 (일본 교토府)

- 일본에서는 지역의 과제 해결이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음. 이에 일본 교토府는 자금 지원과 활동공간 제공을 목표로 府民과 협력해 ‘건강한 지역 만들기 응원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이 펀드는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임.
- 지역의 공익에 기여하는 NPO의 활동이나,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 해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의 과제 해결이나 활성화에 노력하는 NPO나 신진 예술가 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활동자금이나 활동공간을 제공함.
- 이들의 활동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해 지역이 사업 주체가 되도록 함. '지역 중소기업 응원 펀드'도 활용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자가 지역이나 사회의 과제 해결에 있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임.
-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의 진척상황을 계속 보고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와 실적 등에 대해 사후 평가를 받게 됨.

([www.pref.kyoto.jp/npo/1197626569190.html](http://www.pref.kyoto.jp/npo/1197626569190.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 커뮤니티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건강한 지역 만들기 응원 펀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지역 커뮤니티 발전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도입 취지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기부하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보임. 펀드 운용과 관리 문제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박희석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hspark@sdi.re.kr)

#### 한줄 뉴스

##### <영국>

- 2008년 4월부터 신축하는 공공주택은 이산화탄소를 25% 더 저감해야. 2년 후엔 민간주택에도 적용
- 에너지절약재단, 모든 신축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법제화하고 소형 풍력발전과 태양열 발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

### 3. 비즈니스·생태관광으로 관광객이 전년도보다 10% 늘어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2006년 210만 명에서 2007년 230만 명으로 10% 증가함.

- 市는 관광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문화·레저 공간 확충, 새로운 관광지 개발 등이 관광객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 시정부는 2007년 여러 단체와 협력해 공원이나 광장의 보수공사를 진행했음.
  - 관광안내 전화서비스도 24시간 운영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를 도움.
  - 신규 관광지도를 배포하고, 주요 지역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지털 토템’을 설치해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했음.
- 2007년에는 비즈니스 관광과 농촌 및 생태 관광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2086](http://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2086))

### 4. 인터넷으로 전입주민 ‘오리엔테이션’ (파리)

○ 파리市는, 市로 이사오는 사람이 처리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를 도와주는 ‘새입주’(Nouvel Arrivant)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함.

- 市 홈페이지에 연결돼 있는 이 사이트에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직업, 은퇴 여부, 자동차 유무 등의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관련 행정절차와 관할기관 주소 등이 안내됨.
  - 예를 들어 신분증 주소를 바꾸는 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관할기관의 주소나 연락처도 알 수 있음.
  - 자녀가 전학할 수 있는 학교나 전화·전기 연결방법, 근처 우체국·학교·식당 위치 등도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알 수 있음.

(paris.demarchesenligne.fr/evenements-de-vie/nouvel-arrivant)

## 5. 가장 역점을 뒀야 할 행정서비스 1위는 ‘치안 대책’ (도쿄)

- 일본 도쿄都는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도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를 2007년 8~9월에 실시하고, 최근 조사결과를 발표함.
  - 都가 가장 힘썼으면 하는 행정서비스로 ‘치안 대책’(58%)이 4년 연속 1위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고령자 대책’(44%), ‘의료·위생 대책’(42%), ‘방재 대책’(39%), ‘환경 대책’(32%) 순으로 나타남.
  -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금이나 보험료 증가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지난 2년간 3%p 증가해 36%를 기록함.  
·도쿄都가 살기 좋다는 의견은 지난 3년간 8%p 증가해 59%를 기록함.
  - 지난 1년간 지역활동 참가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치회나 반상회에 참가한 사람은 30%, 좀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이나 NPO 활동을 한 사람은 14%임.  
·지역활동 활성화를 위해 都에 바라는 요구사항으로는 지역활동 참여 관련 정보 제공이 34%, 활동비 지원이 29%, 지역 이벤트 개최 등 주민 교류 확대가 28%임.

(www.koho.metro.tokyo.jp/koho/2008/01/toseiyou.htm)

### 한줄 뉴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정신질환자에게 선물상자 등 종이 재활용품을 만들도록 해 치료와 소득창출 기회 제공
- <브라질 쿠리치바市>
  - 시립학교가 방학 중 주말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공예, 외국어, 힙합 강습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실시
  -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신 곁에’ 프로그램 실시

## 6. ‘영화도시’ 마케팅 활발 (파리)

-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수가 2006년 730편에서 2007년 765편으로 약 5% 증가함. 파리에서는 매일 평균 10편의 프로그램이 촬영되는데, 그 중 절반은 프랑스 영화임.
  - 2007년 전체 촬영일 누계는 3558일이며, 4600여 곳이 촬영을 위해 새롭게 꾸며졌음.
  - 2008년에는 새로운 촬영장소 40곳을 공개함. 또한 촬영을 장려하기 위해 촬영장소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는 등의 우대정책도 내놓을 예정임.
    - 거리촬영의 경우, 시민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버스정류장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촬영조건 개선방안도 검토 중임.
  - 파리는 시에서 진행되는 영상물 제작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2007년도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 현황

구분	작품 수	촬영일 수
장편영화	108	1435
TV 드라마 및 TV용 영화	126	1030
단편영화	103	281
광고 및 비디오 촬영	135	217
광고사진	90	137
다큐멘터리	66	150
학생이 제작하는 영화	137	308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7&docume](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7&docume))

## 복지 · 문화

### 7. 자녀양육, 이렇게 ‘응원’합니다 (도쿄)

○ 도쿄都是 5000명이나 되는 보육원 대기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 응원도시 도쿄의 중점전략’을 수립함.

-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직장여성 약 70%가 퇴직하고, 자녀양육 시기에 70%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희망하지만 실제 휴직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약 90%가 사회 전체적으로 자녀양육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느낌.
- ‘자녀양육 응원도시 도쿄의 중점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고용환경 정비: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 Life Balance) 실천 프로그램으로 일하면서도 자녀양육이 가능한 환경으로 정비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직업상담소를 설치함.
  - 대도시에 적합한 보육서비스 확충: 보육시설 정원을 2010년까지 1만 5000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보육 서비스 확충 긴급 3개년 사업’으로 대기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아픈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육시설을 지원하며, ‘방과 후 수업’ 등을 추진함.
  - 자녀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자녀를 데리고 손쉽게 외출할 수 있도록, 수유(授乳)나 기저귀 갈기 등을 할 수 있는 ‘아기 오피스’를 마련하고, 자녀양육을 배려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며, 산부인과와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의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의료체제를 정비함. 자녀양육 응원 웹사이트 개설 등 사회 전체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www.metro.tokyo.jp/INET/KEIKAKU/2007/12/70hcq100.htm](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07/12/70hcq100.htm))



## 8. 예술가에게 작업공간을 빌려줍니다 (파리)

○ 파리는 파리의 12구와 일드프랑스주 수도권 지역의회의 지원을 받아, 예술가의 작업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약 1500m<sup>2</sup>규모의 공용 아틀리에(작업장)를 2008년 1월 파리의 12구에 설치함.

- 조형 예술, 음악, 연기, 춤 관련 예술가나 아마추어 작가 등이 이용할 수 있음.
- 조형 예술가를 위한 작업공간은 6시간 이용에 4유로(약 5600원), 영화인을 위한 공간은 1시간당 2유로(약 2800원), 음악 스튜디오는 1시간당 4유로(약 5600원)가 부과됨.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48517&portlet\\_id=815](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48517&portlet_id=815))

## 9. 학문 분야에서도 ‘우먼파워’ 기대 (베를린)

○ 베를린 시의회는, 교육·학문·연구부가 제출한 ‘독일 대학의 학문·연구부문에 있어 남녀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연방과 주의 교수 프로그램’을 최근 심의·의결함.

-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문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여성학자 수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것임.

- 시는 2012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연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베를린시가 ‘지식이 베를린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마스터플랜의 직업교육 강화정책을 통해 충당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12/18/91066/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12/18/91066/index.html))

## 10. 여성이 나서면 ‘스포츠 가족’ 된다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2008년 3월 ‘제1회 쿠리치바 여성 스포츠대회’를 열. 대회 종목은 수영, 축구, 핸드볼, 배구, 농구 등이며, 쿠리치바市에 거주하는 아마추어 여자 선수만 참가할 수 있음.
- 이 대회는 여성의 건강과 레저를 위해 계획됐지만, 여성의 관심을 모으면 결국 모든 가족이 스포츠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쿠리치바市 스포츠·레저국장은 “스포츠는 건강한 삶을 의미한다. 어머니나 딸이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스포츠를 즐기게 된다. 특히 대회를 통해 여성 체육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함.
- 참가비는 무료며, 대학 등 학교 운동장이나 시정부 산하 스포츠센터 등 市 전역에서 열릴 예정임.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2057](http://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2057))

## 11. 요양할 사람, 이곳으로 오세요 (베를린)

- 베를린市는 市 전역의 요양원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요양원 포털 사이트’(www.berlin.de/pflege)를 2007년 12월에 열.
- 이 서비스는, 베를린市가 요양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독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임.
  - 요양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요양원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市 소재 요양원 170여 개가 등록돼 있고, 요양소 포털 사이트에서 원하는 지

역을 클릭하면 각 요양원의 현황 및 특징을 볼 수 있음.

- 현재는 요양원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요양원 정보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았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12/20/91252/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12/20/91252/index.html))

## 도 시 환 경

### 12. 지구온난화 방지는 가정에서부터 (런던)

○ 런던市는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런던 녹색가정 만들기 정보센터’(London Green Homes)를 최근 개소함.

- 정보센터에서는 무료 전화상담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등 무료 서비스와 각 가정의 형편과 취향에 맞게 맞춤형 녹색가정으로 리모델링해주는 유료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임.
- 상담내용은 전력요금 절감 등 가정경제를 살리는 대안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임.
- 트라팔가 광장에 설치된, 실제 크기의 생태주택 모델하우스(제1호 저탄소 하우스)에서 런던시장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개시 선포식이 열렸음.
- 제1호 저탄소 하우스는 녹색가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반영해 설계됐음. 앞으로 시내 곳곳에서 순회 전시돼 기후변화 대책 홍보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772](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772))

([www.londonclimatechange.co.uk](http://www.londonclimatechange.co.uk))

### 13. ‘바람’으로 모든 주택에 불 밝히자 (영국)

○ 영국정부는 2020년까지 영국 전역의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풍력발전소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33기가와트의 풍력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후 추진할 예정임.

-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기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유럽연합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말함.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Friends of the Earth)는, 풍력 발전을 이용한 재활용 전력생산 산업이 가능하다고 이 계획을 높이 평가함. 또한 영국은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분야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에너지 재활용 산업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772436/Hutton-announces-offshore-wind-power-expansion](http://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772436/Hutton-announces-offshore-wind-power-expansion))

### 14. CO<sub>2</sub>=돈...혼잡통행료 차등부과해야 (런던)

○ 최근 런던 시민 3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이 런던 시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에 진입할 때 하루 25파운드(약 5만원)를 부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런던시민의 2/3가 지지함.

- 응답자의 91%는 기후변화 대책이 중요하다고 답하고, 66%가 이 계획에 찬성한다고 답함.

·63%는 혼잡통행료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배출 자동차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고, 68%는 이산화탄소 배출차량에 대한 높은 부과금은 런던 전체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응답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974](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974))

## 15. 소형 발전기 설치할 때 이웃에 피해주지 마세요 (런던)

- 영국정부는 ‘소형 발전기 설치 계획’(Microstation Planning Application)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 이 법안은 태양열 집적판, 풍력발전기, 열펌프, 바이오매스(Biomass), 열병합 발전기와 같은 소형 발전기가 이웃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약조건을 담고 있음.
  - 태양열 집적판은 지붕에만 설치해야 하며 15c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함.
  -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바라볼 때 태양열 집적판이 보이지 않아야 함.
  - 풍력발전기는 3m 이상 돌출되면 안 되고 날개 직경이 2m 미만이어야 함.
  - 열병합 발전기나 바이오매스의 굴뚝은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1m 이상 올라가면 안 됨.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771501/Micro-energy-schemes-set-removed-planning-control](http://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771501/Micro-energy-schemes-set-removed-planning-control))

## 16. 민간 주택사업체도 기후 보호에 앞장서 (베를린)

- 2007년 12월 베를린 도시개발부와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주택사업체연합(BBU)이 기후 보호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함.
  - ‘2006~2010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에너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협약은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10만여 톤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BBU는 주택 난방과 온수 사용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BBU에 등록된 주택사업체(주택을 다량 보유하고 매매·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는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기후 보호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음.
  - 1991~2005년 BBU에 등록된 건물에서 연간 63만여 톤의 이산화탄소가 감

소했음.

-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기후 보호를 위해 BBU에 등록된 주택사업체와 베를린市 간의 개별협약도 체결할 계획임.
- 개별협약은, BBU에 등록된 개별 사업체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임.
- 이는 에너지 절약과 건물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12/nachricht2913.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12/nachricht2913.html))

## 17. 가로수를 죽이는 제설용 소금 살포 No! (베를린)

- 베를린市는 눈이나 얼음을 녹이기 위해 개인이 제설용 소금(염화나트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그동안 베를린市는 특정 도로구간에서만 제설용 소금을 살포해왔으며, 개인에게는 환경마크와 ‘염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표시가 부착된 제설용 소금만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왔음.

- 제설용 소금이 눈이나 얼음을 녹이기 위해 흔히 사용되지만, 나무의 수분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나무뿌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피해가 많아 금지하기로 함.
-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건기가 지속되면서 토양에 염화나트륨 함량이 이미 높은 상태임. 여기다 추가로 염화나트륨을 뿌리면 토양 생태계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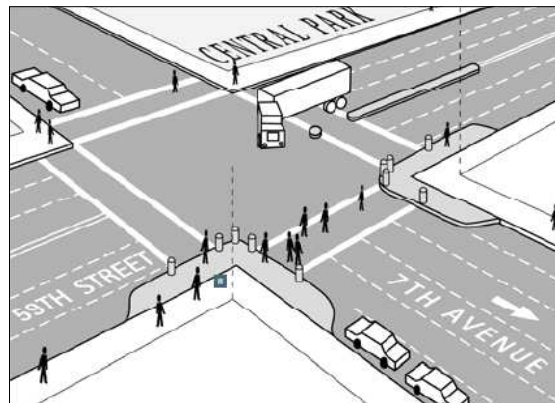
- 베를린市에는 총 41만여 그루의 가로수가 있음. 가로수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뿐 아니라 주거환경,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됨.
- 40년생의 활엽수 한 그루가 하루에 약 7000리터의 산소를 뿜어내고 9000여 리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약 2kg의 먼지를 여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12/nachricht2927.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12/nachricht2927.html))

## 도 시 교 통

### 18. 교차로·횡단보도에 방지턱을 설치해 교통사고 줄이자 (뉴욕)

- 2007년 12월 뉴욕市 시민단체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Transportation alternative)가 노인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뉴욕市 어퍼 이스트 사이드(Upper East Side) 지역의 18곳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잘못 설계돼 있어 보행을 주로 하는 노인에게 위험한 것으로 나타남.
  - 횡단보도의 길이가 길수록 노인은 심리적으로 빨리 걷게 됨. 긴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미리 도로 쪽에 내려 서 있는 비율이 높음.
    - 횡단보도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차로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도로 설계 시 보행자보다 자동차 통행을 우선시한 결과임.
    - 설계를 잘못된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노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이 때문에 노인이 외출을 꺼리면 결국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 운동량을 채우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는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횡단보도 신호등 시간을 노인의 보행속도에 맞게 조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도록 교차로 코너와 중앙차선에 방지턱을 설치하자고 제안함.



교차로 코너와 중앙차선에 설치된 방지턱

### >>> 전문가 검토의견

- 뉴욕市 시민단체의 연구결과는 비단 뉴욕市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모든 도시의 문제로 서울시 역시 예외가 아님.
-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선 유럽과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보행속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횡단시간을 늘리는 신호기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
  - 도로폭원이 넓은 경우 도로 중간에 ‘교통섬’(차량의 주행을 제어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중간에 설정한 구역)을 설치해 고령자에게 보행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도 보행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특히 서울시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도로폭원이 넓은 도로가 많아, 보행환경 개선정책 수립 시 고령자 보행 편의 제고방안을 고려해야 함.

/이신해 도시교통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 한줄 뉴스

- 요코하마市, 신·재생에너지 도입이나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 등 지역 규모의 환경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정책 기본구상(안)’ 마련
- 북경市, 2008년부터 60세 이상 노인의 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모든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별 의료기록노트 시스템 구축
- 캘리포니아州 롱비치항만위원회, 화물트럭의 화물량에 따라 세금을 걷어 환경친화적인 디젤트럭 구입 예정



## 19. 강에서도 속도 규제 도입 (런던)

○ 런던항만청(Port of London Authority)은, 템스강에서 고속 카타마란(Catamaran: 선체가 둘인 쌍동선) 보트가 수상 통근버스로 이용되고, 관광용 보트의 속도도 빨라지고 운항 횟수도 늘어나면서 안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속도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런던항만청은 다양한 운항경로 개발과 고속보트 도입에 따른 안전조치라고 규제속도 도입배경을 밝힘.
- 규제속도가 도입되면 런던 시내와 그리니치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최대 12노트(약 22km/h)로 운항해야 함.
  - 현재 템스강의 수상 여객선은 평균 10~12노트(약 19~22km/h) 속도로 운항하고 있으며, 장거리 운항의 경우 평균 24~29노트(약 45~54km/h) 속도인 것으로 조사됨.

([news.bbc.co.uk/2/hi/uk\\_news/england/london/7169479.stm](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london/7169479.stm))

### >>> 전문가 검토의견

- 수상교통이 발달한 템스강의 경우 각 교통수단의 속도 및 항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함.
  - 강뿐 아니라 바다나 하늘도 해상로나 공역(空域)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특성상 당연한 조치임.
- 한강에서 2007년 발생한 수상택시와 레저보트의 사고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향후 한강에서도 수상 교통량이 많아지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함.
  - 특히 선박 크기와 속도가 다양하게 혼재돼 운영되면 더욱 필요한 조치임.

/윤혁렬 도시교통부 연구위원(yoonhr@sdi.re.kr)

## 방재 · 안전

### 20. 산불이 발생하면 주민에게 긴급통지 (캘리포니아주)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7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피해가 컸음.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 피해가 큰 카운티 13곳에 200만 달러(약 18억 8000만 원)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투입해 긴급통지 프로그램을 시행함.
  - 이 프로그램은 위급한 상황에 이용하는 '911' 전화번호를 역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각 카운티가 주민에게 긴급통지를 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 실제 2007년 샌디에이고에서 산불이 났을 때 카운티에서 주민 30만 명에게 전화로 긴급통지를 보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
  - 주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긴급통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함.  
([www.sacbee.com/114/story/596349.html](http://www.sacbee.com/114/story/596349.html))

### 21. 접근하기 힘든 화재 진압은 '원격 이동 소화장비'로 (런던)

- 런던소방청(LFB: London Fire Brigade)은 방산업체인 QinetiQ(지금은 민영화된 前 영국 국방과학연구소)에 의뢰해 폭발 위험이 높은 아세틸렌가스 화재에 이용할 수 있는 원격 이동 소화장비(ROVs: Remotely Operated Vehicles)를 개발해 시험운영에 들어감.
  -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런던市에서 철도 시설 등에 이용되는 아세틸렌가스 용기 주변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방대원을 비롯한 시민이 가스폭발 위험에 노출됨.
  -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 폭발 위험 때문에 사고지점에서 반경 200m 구간은 최소 24시간 동안 통제돼 대중교통 이용자도 불편을 겪게 됨.

- 원격 이동 소화장비를 이용하면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더욱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원격 장비에는 카메라와 열화상(Thermal Image) 분석장치가 장착돼 있으며, 다양한 지형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됨.

([www.london-fire.gov.uk/news/detail.asp?id=921](http://www.london-fire.gov.uk/news/detail.asp?id=921))

## 22. 재해 극복의 일등공신, 자원봉사 (일본)

-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해인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기념해 1월 17일을 ‘방재와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매년 1월 15~21일에 ‘방재와 자원봉사 주간’ 행사를 엮.
- 최근 일본 국민이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어, 2008년 행사에서는 주로 방재훈련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룸.
- 도쿄 소방청은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조 및 소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자원봉사자’(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말함.
  - 도내에 거주, 근무, 재학 중인 15세 이상의 도민이면 누구나 구명강습을 받을 수 있고 수료 후 자원봉사자로 등록할 수 있음.
  - 등록 후에도 방재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능에 관한 ‘자원봉사 강습’을 수강해야 함.
- 都는 2008년 1월 2회에 걸쳐 대규모 재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철역 내부나 주변의 대혼란을 방지하는 훈련도 실시함.
  - 대규모 재해 시 교통수단이 마비되고 역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區, 사업자, 관계 기관과 제휴해 훈련함.

([www.koho.metro.tokyo.jp/koho/2008/01/bousai.htm](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8/01/bousai.htm))